





8개市, 19개郡, 29개군, 162개面 4백 50여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京畿道-。 더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이기에 他시도에 비해서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기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黃哲秀교육감도 한치의 빈틈없이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가자가 방문한 10월 7일만 하더라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중에 잠깐 시간을 낼 수 밖에 없는 짝 짜인 일정이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1천 8백41개교를 관장하는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역시 다른 市道에 비해서 특색있는 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다.

————黃哲秀교육감님의 학생지도에 대한 교육이념이랄까 교육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7세까지 또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저학년까지는 기본생활습관을 지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黃哲秀 씨

도해서 인간의 틀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골격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바로잡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오고 말지요.

그후 국민학교 상급학년이나 중학 일학년생까지는 정서교육에 치중합니다. 즉 미술이나 음악등을 통한 인간교육을 시켜 풍부한 정신세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생활습관이나 정서교육을 함양시킨다음에 고등학교 상급반에서는 학력향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향상될려면 거기에 따르는 지식이나 실력(학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실천교육입니다. 즉 지금까지 쌓아 온 학식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생각과 행동을 다듬는 것이지요.

모든것을 실천하는데는 정신적 바탕이나 德性을 바탕으로한 행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이와같은 교육이념과 바탕에서 교육받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黃교육감의 말씀에서 기자는 어린시절에 대하는 자애스럽고 따뜻한 할아버지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시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이론과 실재를 병합시킨 실천방안의 하나로 学徒愛鄉隊를 각 동·리마다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학도애향대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초중고등학생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정직, 친절, 질서, 예절, 청결등 5大德目の 실천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품성을 가다듬어, 품위있는 문화국민상을 정립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고장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경기도내 “洞里마다 조직되어 있는데 8206隊로서 애향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愛鄉隊는 기본정신으로 주인정신, 애향정신, 봉사정신, 협동정신, 자율정신등으로 되어 있어 정신무장으로도 나무랄데 없는 기본을 이룩하고 있었다.

黃교육감은 힘주어 이야기 한다.

『여러분이 아마 경기도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만 지금쯤 시골길 어디를 가나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는 가로 꽃밭을 보셨을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도애향대가 심은 활동입니다.

한가지예에 불과합니다만 꽃씨를 건우워 나누어주고 이것이 커져서 동리 공원 가꾸기 운동으로까지 번진것이지요. 기타 공부방에 태극기달기 운동이라던가 경로 잔치, 자연보호등 하는일이 참 많지요 전번에는 왜가리 살리기 운동등 특수한 일에 온 정성을 쏟은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가지 우리 학도애향대가 한 일중에 가장 특기할 것은 자체적으로 방위성금을 거두어서 우리의 국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즉 84년부터 85년에 걸쳐 조그마한 성금으로 15억 2천 5 백만원을 납부했고 지금도 2 억원을 거두어서 납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해안 도서지방을 많이 끼고 있기때문에 간첩등의 침투 루트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금해서 현금한 돈은 서해안의 대간첩 철조망 설치자금에 써서 자주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黃哲秀교육감은 경기도만이 가지는 학생들의 애향활동이 참으로 대견한듯 껄껄 웃는다.

안보 국방은 내뎠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정을 잘 가꾸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고장을 잘 지키면 그것이 곧 안보 국방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그 길이 곧



사진 : 기자 및 기
협 경기지부간부
와 대담하는 黃哲
秀 교육감 (中央)

애국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한가지 에피소드를 말씀 드리지요. 우리와 같이 軍警學生이 화합되고 협동되는 道도 드물 것입니다.

예를들면 우리들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 훈련을 하면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誠金을 모금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해줍니다. 이번에는 꼭 나가서 優勝을 하고 오라고 당부겸 격려를 해주지요.

전국체전등에서 서울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道단위에서 우수한 관록은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등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결과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될 때, 이것이야말로 국민총화요 판민일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만이 가지는 자부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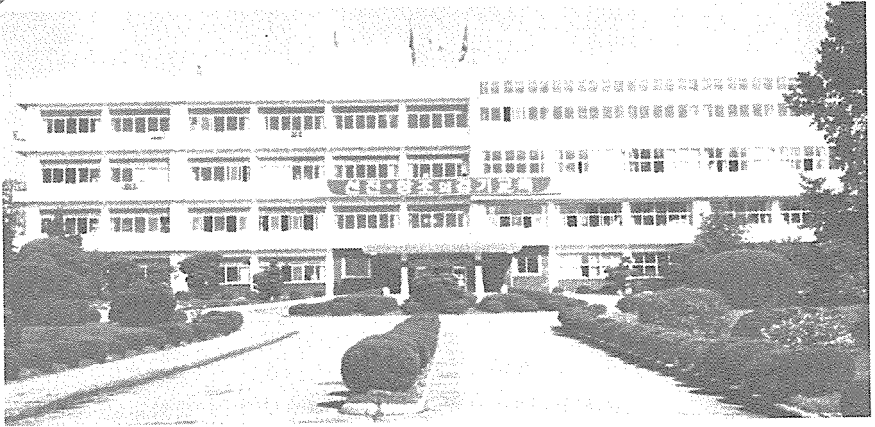
黃 교육감은 또 애향대 활동의 정신적인 양식을 위하여 「경기향토독본」을 만들기도 했다. 국민학생용 4권, 즉 1. 자랑스런 내고장 2. 충절로 지킨 내고장, 3. 내고장의 빛나는 문화, 4. 내고장의 위인들을 출간했으며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제목의 수준높은 독본을 내어놓기도 했다.

그 이외에도 My Country, 새물결 음악무용발표대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등 10여권의 교양독본을 발간, 자랑스런 국민상정립과 경기도 애향활동의 기본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만이 가지는 특색있는 보건사업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기생충검사사라던가 결핵검사등 병리검사를 실시하기전에 왜 이런 검사를 해야하느냐를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지요. 이런 결과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100% 수검율을 올리고 있지요. 검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기관이나 가정과 협조해서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후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미배치학교에는 1월



○경기도 교육위원회 건물 전경
에 2회이상 순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호업무담당에 관한 지도나 조
인, 보건위생사업 추진협조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셋째로 큰 사업은 불량정오수 일소대책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끓
인물 먹기」캠페인도 벌여서 다대한 성과도 견우고 있습니다. 정오수를 개수 보수
해서 이미 목표에 도달이 되었습니다만 년2회이상은 꼭 검사를 실시하며 교육청단
위로 년1회씩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보건위생전반에 걸친 정기점검입니다.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씩
부족사례는 시정도 하며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다른 학교에 파급되는 효과도 견두고
있지요. 조도,소음,우물소독등은 계기로 체크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있지요.』

————기생충 검사대책은 어떤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도는 재적인원 100%를 목표로 잡아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달학교는 추가
검사까지 실시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담당교사 문책까지도 한적이 있지요. 기생충
은 감염율이 0%로 근절될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횡수를 줄일경우 또다시 재감염의 우려가 크기때문에 년2회 계속 실
시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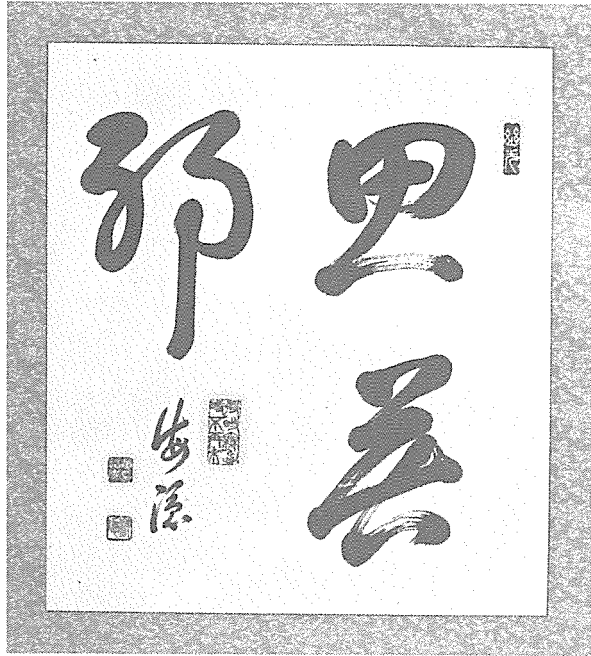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학생들의 집단 건강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요즈음은 아동들의 심장병이나 소아당뇨병등 현대병이 어릴적부터 우리들을 괴
롭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책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는 검사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중앙의 기본방침이 시달될때까지는 적극성은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염검사에 견험을 소개한 적도 있고 신장병검사등은 자체공문도 시달해

黃哲秀교육감의
교육 이념을 자필
로 쓴 휘호.



서 검사를 권장한적도 있지요.』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시는 黃哲秀교육감의 人品에서 기자는 이런 교육감 밑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고 있었다.

동석한 金基喆보건계장은 黃교육감의 인간성을 이렇게 귀땀해 준다.

『우리 黃교육감님은 일선 교사나 하위 사무직을 막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모로 대화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용화를 도모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金계장은 또한 黃교육감을 인자 후덕 포용력, 자상한점이 다른 어느분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취미가 있으시다면?

『서예(書芸)가 취미지요, 모든 일에 시달리다가도 일단 붓을 잡으면 無我無念의 昇化된 정신세계로 돌아가지요. 오로지 書道三昧의 경지에 심취하곤 합니다.』

◎…黃교육감은 서울대 師大卒. 문교부장학관, 서울시교위 부교육감, 경기고등학교장, 문교부 장학연수실장 등 요직을 두루거쳐 83년 2월 현 교육감에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도 수상한바 있다.

부인 金点淑여사와의 사이에 2男3女.